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 김나희**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박보경

교수 도현심***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Master : Kim, Na-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Lecturer : Park, Bo-Kyung

Professor : Doh, Hyun-S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A total of 285 mothers whose children aged from 4 to 6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on their personalities, their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es and *t*-test. First, maternal extravers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and maternal neurotic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se parenting variables. Second, preschoolers' adaptability was negatively linked to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and preschoolers' activity was positively linked to these parenting variables. Lastly, preschoolers' adaptability moderated the impact of maternal extraversion on controlling parenting. Maternal extraversion was a negative predictor of controlling parenting when preschoolers' adaptability was low. This relation was non-significant when preschoolers' adaptability was high.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both maternal personality and preschoolers' temperament play crucial roles in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주요어(Key Words) : 인성특성(personality), 기질(temperament), 과보호적 양육행동(overprotective parenting), 통제적 양육행동(controlling parenting)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김나희 (E-mail : ibbuni85@hanmail.net)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I. 서론

최근 들어 자녀의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함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과보호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상황을 지나치게 감독하고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지시하며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격려하는 경향이 있다(Coplan, Reichel, & Rowan, 2009). 예를 들어, 과보호적인 부모는 낮은 상황에서 자녀가 가까이 머물게 하며 모험을 하거나 활발히 탐색하는 것을 격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과보호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주도성이 낮고 불안이나 우울, 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Rubin & Burgess, 2002; Bayer, Sanson, & Hemphill, 2006; Ruy & Lee, 2007; Kim, Kim, & Han, 2008),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Moon & Kim, 2001).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성인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부족하여 이를 양육행동의 다양한 하위요인들 중 하나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비일관적으로 정의하고 있어(Park & Lee, 1990; Lim, 1994; Park, 1998; Doh & Falbo, 1999),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의미를 고찰한 국내의 선행연구들(Thomasgard & Metz, 1993; Park, 1998)은 부모의 과보호가 과도한 애정이나 간섭, 통제뿐만 아니라 방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자인 Levy(1931)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안에 부모의 지나친 통제뿐만 아니라 통제의 부족도 포함된다고 개념화한 반면, Thomasgard and Metz(1993)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자녀가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게 해주는(indulgent) 행동과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와의 분리를 불안해하거나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보호하고 감독하여 자녀의 독립심 발달을 방해하는 통제적인 행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Thomasgard & Metz, 1993; Doh, 1994), 크게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Doh, 1994). 아기취급 행동은 자녀를 연령에 맞지 않게 어리게 취급하는 것이며 보호적 행동은 자녀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통제의 개념은 다소 소극적인 측면, 즉 자녀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통제, 즉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강압적으로 다루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부정적 양육행동인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유형이 정립되는 유아기의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Ruy & Lee, 2007; Kim, Kim, & Han, 2008; Huh, 2008), 이 시기의 발달 및 적응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을 탐색하였다.

양육행동의 원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크게 부모의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인성특성, 효능감, 스트레스, 결혼만족 등과 같은 부모의 측면과 자녀의 성이나 기질, 행동문제 등과 같은 자녀의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Lim & Park, 1994; Park, Jun, & Han, 1996; Kim & Jeon, 2003; Metsäpelto & Pulkkinen, 2003; Kim, Park, & Kim, 2005; Park & Rubin, 2008).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부모 측면의 인성특성과 자녀 측면의 기질특성은 각 측면의 대표적 변인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부모의 인성특성은 주로 외향성과 신경증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우호적이고 열성적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력이 넘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성향인 외향성(extraversion)이 높은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향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녀를 지지해주는 것과 같이 양육적(nurturant)이었으며 자녀와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였다(Jeon & Park, 1999; Kim & Kim, 2002; Metsäpelto & Pulkkinen, 2003). 외향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외향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외향성과 부정적 양육행동 중 하나인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에 부적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신경증성(neuroticism)은 불안, 슬픔,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으로,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Park, & Kim, 2005; Coplan, Reichel, & Rowan, 2009).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어리게 취급하는 아기취급 행동과 자녀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보호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So, 2001). 특히 불안은 신경증성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불안이 높은 부모는 환경에서 자녀에 대한 위협을 보다 많이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안장애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Lindhout et al., 2006)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부모는 통제집단 부모보다 덜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더 많이 통제하고 제한하는 양육 스타일을 보이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더 많이 걱정하며 자녀에게 독립심을 덜 격려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안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통제집단 부모의 자녀보다 부모가 더 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부모의 인성특성은 과보호적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통제적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향성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르도록 자녀의 행동과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Kim & Jeon, 2003). 외향성과 같이 인성특성의 긍정적인 측면들인 동조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보고되었는데, 동조성(agreeableness)이 높은 부모는 강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으며(Coplan, Reichel, & Rowan, 2009),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처벌적인 것과 같이 제한적(restrictive)이지 않았다(Metsäpelto & Pulkkinen, 2003). 반면,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통제적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지각했을 뿐만 아니라(Kim & Kim, 2002; Kim & Jeon, 2003)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권력행사적 양육행동(power assertion)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이와 같이 부모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외향성이나 신경증성과 같은 인성특성은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외향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인성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질적 특성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기질은 반응성(reactivity)과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서의 타고난 개인차로 정의되어질 수 있으며(Rothbart & Ahadi, 1994), 연구자에 따라 하위요인의 구성을 다소 다르게 설명하나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등이 포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So, 2001)에서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정도를 뜻하는 적응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에는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기질특

성인 접근-회피성은 아기취급 행동이나 보호적 행동과 같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두려움이나 수줍음이 많은 자녀를 과보호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Park & Rubin, 2008; Coplan, Reichel, & Rowan, 2009)로 미루어 보아서도 자녀의 적응성은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부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적응성이나 수줍음과 같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자녀의 기질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녀의 적응성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통제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Kim & Kim, 2002).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자녀의 활동성 역시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아의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어머니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보였다고(Kim & Jeon, 2003; Huh, 2008). 한편, 자녀의 기질특성 중 수면과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정도를 의미하는 생리적 규칙성의 경우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hoi, 1995; Kim & Kim, 2002; Kim & Jeon, 2003; Huh, 2008), 반응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가 자극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이 빠르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보인다는 연구결과(Kim & Jeon, 2003)가 보고되는가 하면, 유아의 반응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Huh, 2008)도 보고되었다. 자녀의 반응성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가 반응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Kim & Kim, 2002; Kim & Jeon, 2003; Huh, 2008).

이 외에 자녀의 기질특성 중 부정적 정서를 자주 보이거나 까다롭거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구체적으로 화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보이거나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는 권력행사적이고 적대적이며 지나치게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Paulussen-Hoogeboom et al., 2007). 또한,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조절(emotional-dysregulation)도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Coplan, Reichel, & Rowan, 2009). 이처럼, 자녀의 기질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자녀의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자녀의 기질특성 가운데 두려움 또는 수줍음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녀의 낮은 적응성이나 높은 활동성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자녀의 적응성(Kim & Jeon, 2003) 및 활동성(Kim & Kim, 2002)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어 양자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둘 다 고려하여 양방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양육행동의 발달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Coplan, Reichel, & Rowan, 2009). 본 연구와 같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심을 둔 연구(Coplan, Reichel, & Rowan, 2009)에 의하면, 수줍음이 많은 자녀의 어머니에게서는 신경증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이 증가하였으며,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자녀의 어머니에게서는 동조성(agreeableness)과 강압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및 권력행사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Clark, Kochanska, & Ready, 2000)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서만 공감능력이 낮을 때 권력행사적 양육행동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소수에 불과하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인성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기질이 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기질이 각각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인성특성은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은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은 중재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12곳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285명의 만 4~6세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어머니와 유아 간의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 3세를 기준으로 하여(Mahler, Pine, & Bergman, 1975), 그 이상에 속하는 만 4~6세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4세가 75명(26.3%), 만 5세가 140명(49.1%), 만 6세가 70명(24.6%)이었으며, 성별은 남아가 142명(49.8%), 여아가 143명(50.2%)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50명(17.5%), 첫째가 69명(16.6%), 둘째가 138명(39.7%), 셋째 이상이 27명(9.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후반인 35-39세(54.1%)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8.1%로, 직업은 전업주부가 4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중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응답방식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이다.

1) 어머니의 인성특성

어머니의 인성특성은 Eysenck and Eysenck(1975)가 제작한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근거로 한 So(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외향성(14문항)과 신경증성(17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위요인 구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향성은 우호적이고 열성적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이 넘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활기가 넘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신경증성은 불안·우울하고 적대적이며 자의식이 강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자아력(ego strength)이 낮은 성향을 의미하며, '감정이 쉽게 상한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외향성과 신경증성의 Cronbach's α 는 각각 .86, .90이었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 and Chess(1977)의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Carey and McDevitt(1978)의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등을 기초로 한 Huh(2008)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등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하위요인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가지 하위요인에 동시에 속하거나 .30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거나 뚜렷하게 요인이 구별되지 않는 8문항과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2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5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응성(9문항)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낮선 곳에서도 10분 이내에 잘 적응한다', '공원에서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낯선 유아에게 접근하여 그들과 함께 논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활동성(8문항)은 신체적 움직임 혹은 활동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팔과 다리 등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더 즐긴다', '놀이터에서 뛰고 미끄럼틀에 기어오르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생리적 규칙성(3문항)은 수면, 식사와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며,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잔다', '아침에 비슷한 시간(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깬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반응성(4문항)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여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예를 들어, 예쁘다든가 밍다고 한다)', '음식의 맛이 이제까지 먹던 맛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적응성이 .89, 활동성이 .74, 생리적 규칙성이 .86, 반응성이 .71이었다.

3)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Doh(1994)의 The Parental Protectivenes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이용한 So(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아기취급 행동(7문항)은 자녀를 도와주는 행동을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하여 자녀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아이가 어려서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돌보아 준다', '아이의 힘으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가져다 줄 때가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보호적 행동(4문항)은 자녀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혹시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아이가 밖에 있으면 안심할 수가 없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Thomas and Chess(1977)의 종단연구에서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를 기초로 한 Huh(2008)의 척도 가운데 통제성에 대한 1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행동지도를 위해 체벌도 사용하는 엄한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아이가 감정을 억제하도록(예를 들면, 울거나 화내지 않도록) 가르친다', '아이의 마음대로 하게 하면 버릇 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신뢰도를 산출하기 전, 과보호적 양육행동(즉,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30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1문항과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과보호-보호적 행동,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 각각 8문항, 4문항, 9문항 등 총 21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는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이 .80, 과보호-보호적 행동이 .74, 통제적 양육행동이 .78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기관장의 승인 하에 2009년 7월 13~29일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12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사들을 통해 유아 편에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배부된 400부의 질문지 가운데 총 28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연구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4부를 제외하여, 총 285명의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후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예비분석으로 전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전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Table 1> 참조).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외향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r = -.19, p < .01$), 과보호-보호적 행동($r = -.21, p < .001$),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24, p < .001$)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r = .31, p < .001$), 과보호-보호적 행동($r = .29, p < .001$),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40, p < .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적응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r = -.35, p < .001$), 과보호-보호적 행동($r = -.39, p < .001$),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22, p < .001$)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유아의 활동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r = .22, p < .001$), 과보호-보호적 행동($r = .14, p < .05$),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r = .32, p < .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 및 반응성은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과보호-보호적 행동,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인성특성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 이하,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인성특성 중 신경증성($\beta = .27,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0%이었다. 즉, 어머니는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자녀에게 아기취급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과보호-보호적 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외향성($\beta = -.13, p < .05$)과 신경증성($\beta = .25, p < .001$)이 둘 다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10%이었다. 즉, 어머니는 외향적 성향이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N=28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u>Maternal personality</u> | | | | | | | | | |
| 1. Extraversion | - | | | | | | | | |
| 2. Neuroticism | -.33*** | - | | | | | | | |
| <u>Preschoolers' temperament</u> | | | | | | | | | |
| 3. Adaptability | .33*** | -.34*** | - | | | | | | |
| 4. Activity | -.09 | .16** | -.01 | - | | | | | |
| 5. Physiological regularity | .14* | -.16** | .16** | -.09 | - | | | | |
| 6. Reactivity | .09 | -.02 | .06 | .22*** | .23*** | - | | | |
| <u>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u> | | | | | | | | | |
| 7. Overprotective-babying | -.19** | .31*** | -.35*** | .22*** | .04 | -.06 | - | | |
| 8. Overprotective-sheltering | -.21*** | .29*** | -.39*** | .14* | -.08 | .03 | .49*** | - | |
| 9. Controlling | -.24*** | .40*** | -.22*** | .32*** | .01 | .08 | .21*** | .30*** | - |
| M | 2.58 | 2.32 | 2.74 | 2.67 | 3.18 | 3.15 | 2.43 | 2.54 | 2.48 |
| SD | .39 | .45 | .52 | .41 | .51 | .51 | .46 | .55 | .41 |
| Minimum | 1.57 | 1.12 | 1.22 | 1.38 | 1.00 | 1.25 | 1.13 | 1.00 | 1.33 |
| Maximum | 3.79 | 3.41 | 4.00 | 3.75 | 4.00 | 4.00 | 3.75 | 3.75 | 3.44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from Maternal Personality(β) N=285

| Predictor | Overprotective-babying | Overprotective-sheltering | Controlling |
|-----------------------------|------------------------|---------------------------|------------------|
| <u>Maternal personality</u> | | | |
| Extraversion | -.10 | -.13* | -.12* |
| Neuroticism | .27*** | .25*** | .36*** |
| R ² | .10 | .10 | .18 |
| F(df) | 16.17***(2, 282) | 15.75***(2, 282) | 30.08***(2, 282) |

* $p < .05$, *** $p < .001$

Table 3.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from Preschoolers' Temperament(β) N=285

| Predictor | Overprotective-babying | Overprotective-sheltering | Controlling |
|----------------------------------|------------------------|---------------------------|------------------|
| <u>Preschoolers' temperament</u> | | | |
| Adaptability | -.36*** | -.38*** | -.23*** |
| Activity | .25*** | .13* | .32*** |
| Physiological regularity | .15* | -.01 | .08 |
| Reactivity | -.13* | .03 | .00 |
| R ² | .19 | .17 | .15 |
| F(df) | 16.53***(4, 280) | 14.04***(4, 280) | 12.65***(4, 280) |

* $p < .05$, *** $p < .001$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호적 행동을 덜 보인 반면,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호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과보호-보호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통제적 양육 행동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외향성($\beta = -.12, p < .05$)과 신경증성($\beta = .36, p < .001$)이 둘 다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18%이었다. 즉, 어머니는 외향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낸 반면,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질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 이하,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에 대해서는 적응성($\beta = -.36, p < .001$), 활동성($\beta = .25, p < .001$), 생리적 규칙성

($\beta = .15, p < .05$) 그리고 반응성($\beta = -.13, p < .05$) 등 기질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19%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과 반응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를 아기취급 하는 경향이 덜하였으며, 유아가 활동적이고 생리적으로 규칙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아기취급 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과보호-보호적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의 적응성($\beta = -.38, p < .001$)과 활동성($\beta = .13, p < .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7%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보호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과보호-보호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도 유아의 적응성($\beta = -.23, p < .001$)과 활동성($\beta = .32,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15%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4.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첫 번째 단계에는 어머니의 인성특성의 각 하위요인과 유아의 기질의 각 하위요인을, 두 번째 단계에는 어머니의 인성특성의 각 하위요인과 유아의 기질의 각 하위요인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한 번에 하나씩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 초과, 0.1 미만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인을 각각의 평균과의 차이로 변형시키는 평균변환(mean centering)을 하였다.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및 과보호-보호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어떠한 중재적 역할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발견되었다. 즉,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외향성과 유아의 적응성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beta = .15, p < .05$)가 나타났다(<Table 4> 참조).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유아의 적응성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에 따라 어머니의 외향성 수준에 따른 통제적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아의 적응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 = -1.40, p > .05$), 유아의 적응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향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외향성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였다($t = -2.95, p < .01$)(<Figure 1> 참조). 따라서 어머니의 외향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적응성의 중재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발견되어, 추가 분석으로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즉,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각각 10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Controlling Parenting from Maternal Extraversion and Preschoolers' Adaptability(β) N=285

| Predictor | Controlling parenting | |
|---|-----------------------|------------------|
| | Step 1 | Step 2 |
| Maternal extraversion | -.19** | -.20** |
| Preschoolers' adaptability | -.16* | -.19** |
| Maternal extraversion \times preschoolers' adaptability | | .15* |
| R^2 | .08 | .10 |
| $F(df)$ | 12.30***(2, 282) | 10.51***(3, 281)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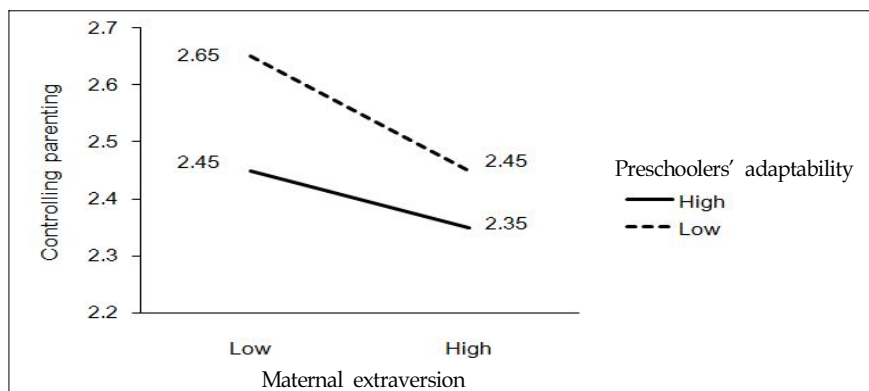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Role of Preschoolers'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Extraversion and Controlling Parenting

Table 5.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Personality and Preschoolers' Temperament on Overprot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β) N=285

| Predictor | Overprotective-babying | Overprotective-sheltering | Controlling |
|----------------------------------|------------------------|---------------------------|------------------|
| <u>Maternal personality</u> | | | |
| Extraversion | -.02 | -.05 | -.10 |
| Neuroticism | .19** | .16* | .31*** |
| <u>Preschoolers' temperament</u> | | | |
| Adaptability | -.29*** | -.32*** | -.10 |
| Activity | .22*** | .10 | .26*** |
| Physiological regularity | .17** | .01 | .11* |
| Reactivity | -.12* | .04 | .01 |
| R ² | .22 | .19 | .26 |
| F(df) | 13.35***(6, 278) | 11.06***(6, 278) | 16.07***(6, 278) |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의 적응성($\beta = -.29, p < .001$)과 활동성($\beta = .22, p < .001$), 어머니의 신경증성($\beta = .19, p < .01$),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beta = .17, p < .01$)과 반응성($\beta = -.12, p < .05$)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22%이었다. 즉,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보호-보호적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의 적응성($\beta = -.32, p < .001$), 어머니의 신경증성($\beta = .16, p < .05$)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9%이었다. 과보호-아기취급 행동과 마찬가지로, 과보호-보호적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도 유아의 적응성이었다.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신경증성($\beta = .31, p < .001$), 유아의 활동성($\beta = .26, p < .001$)과 생리적 규칙성($\beta = .11, p < .05$)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설명력은 26%이었다. 즉,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기질이 각각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즉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의 외향성은

과보호-보호적 행동에만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외향성과 보호적 행동 간에만 부적 상관을 발견하고 외향성과 아기취급 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발견하지 못한 So(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우호적이고 열성적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력이 넘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인성특성인 외향성은 과보호적 양육행동 가운데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자녀를 도와줌으로써 자녀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취급 행동보다는 자녀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보호적 행동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기취급 행동이나 보호적 행동과 같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경증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Kim, Park, & Kim, 2005; Coplan, Reichel, & Rowan, 2009)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So, 2001)에서도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 둘 다를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불안·우울하고 적대적이며 자의식이 강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자아력(ego strength)이 낮은 인성특성인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이 지닌 정서적 불안이나 불안정을 자녀에게도 투여하여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기 쉬운 것이다.

또한, 외향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외향성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Kim & Jeon, 2003)와 일치한다. 또한, 외향성과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인성특성 중 하나인 동조성(agreeableness)과 강압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Coplan, Reichel, & Rowan, 2009)와도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외향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Metsäpelto & Pulkkinen, 2003)로 미루어 보아서도, 외향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행동특성을 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가 13~15개월된 영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스타일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국외의 선행 연구결과(Clark, Kochanska, & Ready, 2000)나 만 3-6세 유아기 자녀와 통제적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한다고 보고한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Kim & Jeon, 2003)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신경증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통해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 즉 유아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아기취급 행동과 과보호-보호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아의 적응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은 만 2세 아동의 두려워하는 기질,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Park & Rubin, 2008)나 3~6세 유아의 새로운 것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 정도와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So, 2001)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건대, 어머니들은 적응성이 낮은 자녀를 취약하다고 지각하여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는 또한 유아가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적 양육행동인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양자 간의 이러한 관련성은 만 3세 전후 자녀의 활동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행 연구결과(Lim & Park, 1994)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 차이와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4~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보다 어린 만 3세 전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결과(Lim & Park, 1994)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활동성은 '옷을 입힐 때 많이 움직인다', '음식을 먹는 동안 발을 차거나 상체를 움직이는 등 몸을 많이 움직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아의 부산한 신체적 움직임은 어머니에게 다소 미숙하게 여겨져 활동성이 높은 자녀에게 아기취급 행동이나 보호적 행동과 같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드물어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가운데 적응성이나 활동성뿐만 아니라 생리적 규칙성 및 반응성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발견되어, 어머니는 유아가 생리적 규칙성이 높고 반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과보호-아기취급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생리적 규칙성 또는 반응성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상호작용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Kim & Kim, 2002)를 토대로, 수면이나 식사와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과도한 애정이 아기취급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반응성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음식의 맛이 이제까지 먹던 맛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유아를 어머니는 미숙하게 여길 수 있으며 이에 자녀를 연령보다 어리게 취급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를 통제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적응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보다 더 통제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Kim & Kim, 2002)와 일치한다. 즉,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정도가 낮은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보다 통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가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를 보다 더 통제적으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유아의 활동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은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Kim & Jeon, 2003; Huh, 2008)과 일치한다. 즉,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유아를

어머니는 다소 다루기 어렵다고 지각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엄격한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달리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 가운데 생리적 규칙성이나 반응성이 미치는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 또는 반응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선행 연구결과들(Kim & Kim, 2002; Huh, 2008)을 뒷받침한다.

연구문제 3, 즉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아기취급 행동 및 과보호-보호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어떠한 중재적 역할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적응성이 어머니의 외향성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였다. 즉, 유아의 적응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외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통제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유아의 적응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향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외향성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자녀의 어머니에게서 인성특성 중 동조성(agreeableness)과 강압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Coplan, Reichel, & Rowan, 2009)와 유사한 맥락이다. 즉, 외향성이나 동조성(agreeableness)과 같은 긍정적인 인성특성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다소 다루기 어려운 기질적 특성을 지녔을 때 보다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을 수행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조합은 후에 자녀의 부적응 행동 발달과 관련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중재적 접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기질적 특성을 지녔더라도 긍정적인 인성특성이 높은 어머니는 적응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이 부진하지만, Coplan, Reichel, and Rowan(2009)은 어머니의 신경증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보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에서는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이 다소 미약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Paterson & Sanson, 1999; Park & Rubin, 2008)이 미미한 상호작용 효과만을 발견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험연구와 달리 조사연구의 경우 측정오차가 많고 극단적 수치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McClelland & Judd, 1993).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엄격하게 구조화되고 통제된 실험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기질의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과 같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인 적응성이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인성특성인 신경증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인 아기취급 행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 특성인 접근-회피성과 같은 자녀의 기질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며(So, 2001),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특성인 신경증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특성인 강인-유약성과 같은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Kim & Kim, 2002; Kim & Jeon, 2003). 이와 같이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는 변인이 다르다는 결과는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서로 독립된 양육행동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과보호적 양육행동 안에도 통제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특성이 보다 강조된 양육행동의 유형인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특성이 보다 강조된 양육행동의 유형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기질의 중재적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약하기는 하였지만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 간에 발견된 상호작용 효과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양방향성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인성특성 가운데는 낮은 외향성과 높은 신경증성이, 유아의 기질 가운데는 낮은 적응성과 높은 활동성이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점에서 본 연구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둘 다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Moon & Kim, 2001; Rubin & Burgess, 2002; Chung & Kim, 2003; Bayer, Sanson, & Hemphill, 2006; Ruy & Lee, 2007; Kim, Kim,

& Han, 2008)에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과 같은 중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 유아의 기질 및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등의 연구 변인들을 어머니 보고만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연구 변인들이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또는 교사 보고나 관찰과 같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변인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원인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측면에서 각각 대표적인 변인인 부모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기질에 초점을 두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Belsky(1984), Abidin(1992) 등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 스트레스,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아버지의 영향 또한 강조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는데 주로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연구가 부진하였던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원인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추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REFERENCE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Bayer, J. K., Sanson, A. V. & Hemphill, S. A.(2006). Parent influences on early childhood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42-559.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arey, W. B. & McDevitt, S. C.(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 735-739.
- Choi, Y.(1995). A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the maternal attitude from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mental st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5), 187-196.
- Chung, M. & Kim, Y.(2003).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depression, marital conflict, & parenting behavior predicting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8), 123-137.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74-285.
- Coplan, R. J., Reichel, M. & Rowan, K.(2009).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A focus on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241-246.
- Doh, H.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Doh, H.(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s and sixth grader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Eysenck, H. J. & Eysenck, S. B. G.(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Huh, T.(2008).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 on child behavior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eon, H. & Park, S.(1999).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53-169.
- Kim, K., Park, B. & Kim, Y.(2005). A study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hood maltreatment: A comparis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 emotional disorder and mothers of normal childre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9(1), 23-37.
- Kim, M. & Jeon, G.(2003). The effect of antecedents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2), 207-228.
- Kim, M., Kim, Y. & Han, S.(2008). The effects of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and young children, and mothers' overprotection on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7), 71-84.
- Kim, Y. & Kim, Y.(2002).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 parents' personality on parent-child interaction. *J. of Human Ecology*, 5, 123-140.
- Levy, D. M.(1931). Maternal overprotection and rejection.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25, 886-889.
- Lim, H. & Park, S.(1994). Mo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Variables related to the first-born chil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5(2), 153-168.
- Lim, H.(1994). *Mo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on the first-bo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indhout, I., Markus, M., Hoogendijk, T., Borst, S., Maingay, R., Spinhoven, P., van Dyck, R. & Boer, F. (2006). Childrearing style of anxiety-disordered par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89-102.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Y.: Basic Books.
- McClelland, G. H. & Judd, C. M.(1993). Statistical difficulties of detec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114, 376-390.
- Metsäpelto, R-L. & Pulkkinen, L.(2003). Personality traits and parenting: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as discriminative factor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59-78.
- Moon, Y. & Kim, D.(2001). Association between the perceived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s in Korean male adolescents.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12(2), 237-244.
- Park, A.(1998). A note on the over-protection for child-rearing in its developmental psychological aspec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5(1), 53-73.
- Park, S. & Lee, S.(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1), 141-156.
- Park, S. & Rubin, K. H.(2008). Toddler's gender and temperament by maternal stress as predictor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109-124.
- Park, S., Jun, C. & Han, S.(1996). Mother's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203-215.
- Paterson, G. & Sanson, A.(1999). The association of behavioural adjustment to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5-year-old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 293-309.
- Paulussen-Hoogeboom, M. C., Stams, G. J. J. M., Hermanns, J. M. A. & Peetsma, T. T. D.(2007).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from infancy to preschool: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43, 438-453.
- Rothbart, M. & Ahadi, S.(1994).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5-66.
- Rubin, K. H. & Burgess, K.(2002).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Vol. 1, pp. 383-418). Hillsdale, NJ: Erlbaum.
- Ruy, H. & Lee, S.(2007). Influences of sex, temperament, and maternal attitud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6), 89-100.
- So, E.(2001). *Maternal separation anxiety: The relations to mothers' characteristics, a child's initial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Thomasgard, M. & Metz, W. P.(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4, 67-80.

□ 접수일 : 2012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12년 04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5월 03일